

##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28절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목자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은 유대인들이 매우 사랑했던 동물입니다.

성질은 안전하고 순종적이어서,

도살될때 저항하거나 날뛰지 않고 순순히 죽임을 당합니다.

탁월한 청력을 갖고 있고,

시야도 넓게 볼 수 있어,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서도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시력이 약하고, 멀리 볼 수가 없어서 위험한 곳을 피해 걷는 게 어렵습니다.

학습능력은 낮습니다만, 그래도 사람이나 다른 양의 얼굴을 몇 년이나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계심이 약하고, 무방비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금새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뒤집히면 혼자서 일어날수가 없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집단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안되고 게다가 자기들을 지켜줄 목자가 없으면 안됩니다.

이스라엘에 갔을 때 실제로 양을 키우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건기였던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바위가 울퉁불퉁한 건조한 광야 같은 곳에서 양들을 방목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을 상상했습니다만,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목초지가 거의 없고, 어떤 곳은 마른 풀만 있는 민동산에서 양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양이 혼자 살기에는 진짜 어렵겠다 생각되었고 목초지로 데려가 줄 목자가 필요하겠다고 실감했습니다.

양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의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기때에만 흐르는 「와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강이 있습니다.

건기때에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큰 도랑이 드러나있습니다.

크기가 큰 것은 낭떠러지이거나, 아니면 그야말로「골짜기」가 됩니다.

떨어지면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거나,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양이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책임지고 지켜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전반부에서는 절도, 강도, 이리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리는 아닙니다만, 두 마리의 개한테 하룻밤에 229마리의 양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두 마리의 개가 229마리라니, 대부분 물리면 그대로 죽었다는 얘기일 겁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악인과 맞서 싸워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이 안심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마른 민동산에서 물이 나오는 샘과 목초지로 인도해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목자로 말씀하시는 경우, 문자 그대로의 목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하지만 생생한 비유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양」입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쓰러지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근시여서,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가 목초지인지 모릅니다.  
나쁜 짐승들이 덮쳐오면, 잠시도 버티지 못하고 당하고 맙니다.  
이런 모든 위험에서부터 보호해주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즉, 양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뿐만이 아니라 사망과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악인으로부터 생명을 걸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생수를 풍부하게 마실 수 있게 인도 해 주시고, 풍성한 생명의 양식으로 키워주십니다.

우리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므로 약하고 어리석은 양인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흠없는 어린양」이십니다.  
대신 제물이 된 「흠없는 어린양」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목자로 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먹여 주십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예수님의 양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기에, 예수님 음성에 따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임을 잘 알고 있기에 예수님을 따라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7절)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용돌이 치는 많은 소음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렇지않은, 즉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외의 소리, 다시말해 악마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상식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래도 좋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므로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도 그들을 알고 계신다라기 보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예수님은 그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영원히 그들의 목자가 되셨기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영원한 구원을 확실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의 무리, 이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것도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교회, 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와 악마에게서 온 자가 한데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곡식」과 「가라지」가,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에 의하면 「신의 나라」와 「땅의 나라」가 뒤섞여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악마의 나라」가 교회에서 전면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상의 눈에 보이는 교회에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원리가 파고 들어옵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교회는, 과연 정말로 「교회」인지, 아니면 세상의 단체인지, 구별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악마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것이 참된 교회의 증거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이고, 예수님의 양인 증거이며, 천국백성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라야 들어가리라」(마태복음 7:21)

「저는 어느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 위원장입니다.」  
「신앙생활 몇 십년입니다」  
이런 것은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상의 보이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악마의 나라」의 백성이 한데 섞여있습니다.  
그 어느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과 악마의 백성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악마의 자식일지도 모릅니다.  
쯔빙글리의 표현을 사용하면,

「거짓, 또는 약한 그리스도신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만 믿음있는 척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그 말씀에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음에도, 대적하지 않는 교회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하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싸움이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따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를, 영원히 당신의 양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당신의 양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오늘 처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분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것을 평생 잊지 않으시길 기도합니다.